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실태분석 용역결과 보고

- ◆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실태분석 연구용역」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2018년 이월예산으로 정책기획관실 학술용역비 87백만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19. 1월(3개월)
- 사업비 : 도비 78백만원
- 사업추진 : 경성대 산학협력단 외주(책임연구원 박성익교수)

□ 연구주제 : 6개 주제

- ① 도의 고용상황의 악화 원인
- ② 청년층 일자리 감소규모,
- ③ 청년층 유출 경로와 원인
- ④ 좋은 일자리의 현황과 결정요인
- ⑤ 경북형 좋은 일자리, 일자리정책 평가
- ⑥ 노동시장권역 분석

□ 결과평가

- 평가기간 : 2019. 1. 22 ~ 1. 31(10일간)
- 평가방법 : 관련 전문가그룹(4명) 구성 및 평가서 (첨부 참조) 작성
- 평가결과 : 총괄평점 4.75

* 총평 : 청년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분석을 충실히 수행함

평균	권기철(부산외대)	권우현(한고원)	김준영(한고원)	이정우(도청)
4.75	5.00	5.00	5.00	4.00

□ 향후계획

- 용역보고서와 평가결과는 프리즘(PRISM)에 등록 : 2019. 2월 중
- 일자리·청년관련 정책용역(2단계사업) 실시 : 2019. 2월이후

- <첨부> 1.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실태분석 연구용역 결과 1부
2.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실태분석 연구결과 평가서 4부.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실태분석 연구결과 요약보고

- ◆ 도내 청년 일자리사업에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한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실태 분석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도의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통계는 제한적**
 - * 도내 2,200개 표본가구 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고용상황지표로 활용중
- 정책수립시 노동공급측 통계만 활용되고 **노동수요측 산업인력통계는 미활용**
⇒ **도 일자리 정책마련을 위한 노동시장통계의 체계적 분석과 자료발굴차원에서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19. 1월
- 사 업 비 : 도비 78백만원
- 사업추진 : 경성대 산학협력단 외주(책임연구원 박성익교수)

□ 분석주제

- ① 최근 도의 고용상황이 타 지역보다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 ② 도의 청년층 일자리는 얼마나 줄었는가?
- ③ 지역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경로와 원인은 무엇인가?
- ④ 도내 좋은 일자리의 현황과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⑤ 경북형 좋은 일자리는 무엇이고, 기존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록) 노동시장권역 분석결과

□ 분석방법, 데이터

주제	세부주제	분석방법	활용데이터
경제·고용현황분석	고용변동 원인분석	변화할당분석	고용보험DB
		일자리 창출, 소멸 분석	사업체조사
	노동시장권역분석	노동자급률에 따른 권역설정	지역별고용조사
청년일자리현황	청년 노동시장지표 분석	임금 등 지표추이 분석	고용보험DB, 지역별고용조사
	청년 유출입현황	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	좋은 일자리 현황	임금기준 현황 분석	지역별고용조사
	경북형좋은일자리	전문가설문조사(AHP) 분석	AHP 설문조사

① 최근 도의 고용여건이 타 지역보다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 분석방법 : 변화할당분석

○ 전국 고용량 증가 대비 도내 산업·시군별 고용량 증가 성과 비교('07~'17년)

- 성과분석 : 전국대비 지역고용변동 = ① 산업특화요인 + ② 지역특수요인 + ③ 자원배분요인

① 산업특화요인 : 전국 평균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특화된 정도

② 지역특수요인 : 기업입지, 산업 클러스터·집적으로 전국 대비 고용증가가 높은 지역특수요인

③ 자원배분요인 : 산업특화요인과 지역특수요인의 결합결과

-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수를 활용하여 10년간 고용변동 요인을 분석

□ 분석결과

○ 10년간 고용증가율은 전국 44.9%, 경북은 35.7%, 증가율 격차는 -9.2%p(전국 12위)

- 2009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한 폴더폰 생산 휴대폰 조립사업장의 급감
-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업체 역외, 해외이전, 수출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 전국대비 고용증가율 격차의 발생원인은 주로 산업특화요인에 의해 발생

- 전국대비 고용증가율격차(-9.2) = 산업특화요인(-5.7%) + 자원배분요인(-5.8%) + 지역특수요인(2.4%)

○ 도 대비 시군 고용증가율 차이가 가장 낮은 곳은 구미, 가장 높은 곳은 김천

- 도대비 구미 고용증가율격차(-10.8) = 산업특화요인(-10.8) + 지역특수요인(-29.1) + 자원배분요인(-5.3)
- 도대비 김천 고용증가율격차(60.7) = 산업특화요인(0.2) + 지역특수요인(72.1) + 자원배분요인(-11.6)

※ 23개 시군중 구미가 유일하게 모든 요인에서 음수(-)의 값을 가짐

○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증가 부진의 원인은 산업특화요인

- 전국대비 고용격차(-40천명) = 산업특화요인(-25천명) + 지역특수·자원배분효과(-15천명)
- 이중 제조업은 산업특화요인(-44천명), 지역할당효과(-36천명)로 고용손실이 가장 큰 산업
- 제조업 중 전자통신, 섬유는 입지계수>1이면서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음수(-)

□ 시사점

○ 전국 대비 고용격차 분해 결과 도의 지역특수요인은 (+), 산업특화·자원배분요인은 (-)

⇒ 전국적 성장산업에 대한 도의 특화도를 높이는 유연한 산업정책이 필요

○ 울산, 경북, 경남 등 전국 대비 고용증가가 (-)된 곳은 제조업 의존집중도가 높은 지역

⇒ 제조업을 보완하는 R&D, 물류유통 등 서비스산업 육성과 공항, 무역항 등 기반시설이 필요

②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줄었는가?

□ 분석방법

- 노동시장 공급측자료인 지역별고용조사와 수요측자료인 고용보험DB를 동시에 분석
 - ※ 고용보험DB상 취업자(비보험자)는 등록지의 문제로 제조건설업종 제외한 취업자수와 불일치
- 경상북도 청년지원조례에 따라 **청년층의 범위를 15세~39세로 확대함**

□ 청년 경제활동상태(노동공급측)

- 청년고용률은 '08년에 비해 전국은 1.1%p 증가한데 비해 도는 **-0.4%p 감소**
 - 17시 시도중 감소한 지역은 도 포함 전북, 전남 3개 지역, 도의 감소폭이 가장 큼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55.8	54.3	54.6	54.6	55.2	55.0	55.8	56.3	56.5	56.9
경북	52.3	50.4	49.6	50.9	53.2	51.5	52.2	51.3	51.3	51.9

- 청년 취업자수는 402천명으로서 '08년에 비해 54천명(11.6%) 감소
 - 연령대별로는 '15~24세'(39천), 학력별로는 '고졸이하'(54천)이 가장 많이 감소
 - 기간중 상용근로자는 11천명(4.1%) 증가한데 비해 1인자영업자는 25천명(46.5%) 감소
- 청년 실업자수는 25천명으로서 '08년에 비해 4천명(17.2%) 증가
 - 연령대별로는 '35~39세' 46천명,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5천명이 증가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348천명으로서 '08년에 비해 47천명(11.9%) 감소
 - 연령대별로는 '15~24세' 39천명,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57천명이 감소
-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7년 219만원으로 '13년에 비해 18만원(14.7%) 증가
 - 도의 임금수준은 전국 12위 수준이고, 최고 서울 242만원, 최저 강원 198만원
 - 시군별로는 울진 255만원, 구미·칠곡 247만원, 경주 242만원순. 최하위는 영덕군 166만원

□ 고용보험DB 분석(노동수요측)

- 경북의 청년층 피보험자수는 '18년 219천명으로 '07년에 비해 12.4% 감소
 -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시도는 도 포함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큼
 - 청년층 범위를 15~29세로 축소할 경우 감소율은 -27.9% 전국 최하위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감소(-17천명), 구미에서 40천명(-45.8%) 가장 많이 감소함
- 청년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18년 21천명으로 '10년에 비해 5.0% 증가
 - 시군별로는 구미가 6천명으로 '10년에 비해 실업급여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

□ 시사점

- 노동수요측 취업자감소폭이 노동공급측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중심의 기업노동수요 감소가 확산되어 자영업자 감소 등 서비스업 취업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③ 지역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경로·규모와 원인은 무엇인가?

□ 분석방법

○ 출생후 생애단계*별 도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규모 파악

* 생애 단계 : 출생후 고교진학, 고교→대학진학, 대학→취업지역 등 3단계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08~'15 원자료 활용, 2016년이후는 미발표

○ 취업지역 결정요인(성, 연령, 고교특성, 대학전공, 기업체규모 등) 분석

• 분석모델 : 로지스틱회귀, 의사결정나무 분석

□ 청년층 유출입 수치

○ 출생후 타지의 고등학교로 매년 8천명 정도가 유출되어 유출입수지는 3천명정도 적자

• '08년에는 수도권과 대구로 순유출자(3천명)가 비슷했으나 '12년 이후 대구로 순유출자가 많음

○ 타지 대학교로 매년 15천명 정도 유출되고 유출입수지는 10천명정도 흑자

• '15년 순유출입지역은 수도권 -690명, 대구 6,113명, 동남권 3,665명, 전체 13천명 흑자로 나타남

○ 지역대학 졸업후 타지 취업인구는 매년 19천명 정도, 유출입수지는 평균 13천명 적자

• (지역)'15년 순유출지역은 수도권 -5천명, 대구 -4천명, 동남권 -3천명 정도로 나타남

• (학제)'15년 유출입수지는 전문대졸 -2천명, 4년제대졸 -11천명으로 4년제 졸업자의 유출자가 5배 많음

• (업종)'15년 취업업종 제조업에서 수지는 전문대(327명)가 가장 높고, 4년제대학(-2천명)은 가장 낮음

단위 : 명

구분	출생지 → 고등 졸업지				고등졸업지 → 대학졸업지				대학졸업지 → 직장소재지			
	경북	유출	유입	수지	경북	유출	유입	수지	경북	유출	유입	수지
2008	24,798	-7,371	4,820	-2,551	13,696	-13,225	25,470	12,245	11,729	-21,689	6,350	-15,339
2012	23,311	-9,258	5,054	-4,204	13,995	-14,541	23,668	9,127	9,996	-18,068	7,107	-10,961
2015	24,971	-7,727	5,553	-2,174	14,373	-16,171	24,305	8,134	10,077	-18,764	5,663	-13,101
평균	24,360	-8,118	5,142	-2,976	14,021	-14,645	24,481	9,835	10,600	-19,507	6,373	-13,133

□ 청년층 유출 결정요인

○ (경북 vs 대구지역 취업 확률비교) 남자, 공·상·농·마이스터고보다는 일반고출신, 연령이 높을수록 경북보다는 대구에 취업할 확률이 높음

• 경북과 대구간 취업지역 결정의 중요변수는 본인학력 : 전문대졸 78.9% > 4년제대졸 46.4%

○ (경북 vs 수도권 취업 확률비교) 남자, 공·상·농·마이스터고보다는 일반고출신, 연령이 낮을수록 경북보다는 수도권에 취업할 확률이 높음

• 경북과 수도권간 취업지역 결정의 중요변수는 본인학력 : 전문대졸 78.1% > 4년제대졸 54.5%

○ (대경권 vs 수도권 취업 확률비교) 남자, 공·상·농·마이스터고보다는 일반고, 연령이 낮을수록 대구경북권보다 수도권에 취업할 확률이 높음

• 대구경북권과 수도권간 취업지역 결정의 중요변수는 기업체규모 : 10인이상 29.5% > 9인이하 10.5%

④ 도내 좋은 일자리 현황과 결정요인 ?

□ 좋은 일자리 개념

- OECD기준 좋은일자리 : 빈곤선의 200%이상 임금을 받는 상용근로자
※ 빈곤선(최저생계비) 상용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50%, 빈곤선의 300%는 아주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기준 : 상용직 근로자로서 월평균급여 250만원이상
• '17년 상용직 근로자 중위임금 250만원, 최저생계비 125만원의 200%. ※ 아주좋은 일자리 375만원 이상

□ 좋은 일자리 현황(2017년)

- 도내 좋은 일자리는 326천명(51.2%), 좋은 일자리 이하 220천명(26.2%)

지역	전체		좋은 일자리(A)		아주 좋은 일자리(B)		B/A(%)
	근로자수	%	근로자수	%	근로자수	%	
전국	13,424,500	100.0	7,480,813	55.7	3,085,394	23.0	41.2
경북	636,861	4.7	326,351	51.2	126,764	19.9	38.8
대구	575,662	4.3	298,197	51.8	105,794	18.4	35.5
경남	840,623	6.3	456,863	54.3	163,887	19.5	35.9

- 도의 청년층 좋은 일자리는 32천명(58.2%), 좋은 일자리 이하 22천명(13.4%)

	상용직 전체		좋은 일자리(A)		아주 좋은 일자리(B)		B/A
	근로자수	%	근로자수	%	근로자수	%	
청년층(15~29세)	111,896	17.6	31,555	28.2	4,038	3.6	12.8
청년층(15~39세)	161,749	25.4	94,059	58.2	21,609	13.4	23.0
전체	636,861	100.0	326,351	51.2	126,764	19.9	38.8

□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

- 전국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 전문대졸보다는 대졸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음
- 도내에서는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이하 전가수)에 취업시 좋은일자리 확률 높음
• 업종별로 제조업과 전가수에 취업할 경우 좋은 일자리 확률이 전국보다 높음

결정 확률	남자	교육(고졸기준)		산업(농림어업광업기준)				지역(서울기준)					
		전문대	대졸	제조	전가수	유통	개인	대구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국	37.2	14.9	34.6	1.6	18.1	-8.4	-21.1	-8.7	-1.7	-3.4	3.3	-7.0	-6.1
경북	40.8	18.0	33.3	16.6	35.7	-0.8	-17.2	-					

□ 청년층(15~39세)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

- 전국적으로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취업시 좋은 일자리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을 준거지역으로 하였을 경우 도 청년층 근로자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10.6% 낮음
- 도에서는 제조업과 전가수, 유통업 취업시 좋은 일자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결정 확률	남자	교육(고졸기준)		산업(농림어업광업기준)				지역(서울기준)					
		전문대	대졸	제조	전가수	유통	개인	대구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국	24.5	13.3	31.3	15.2	23.8	6.9	-8.4	-9.7	-2.1	-3.9	0.8	-10.6	-8.7
경북	29.6	7.8	22.1	40.3	42.2	23.1	21.4						

⑤ 경북형 좋은 일자리 설정과 일자리 정책의 중요도 평가

□ '경북형 좋은 일자리' 개념설정의 필요성

- 좋은 일자리 개념설정시 **농촌과 도시가 혼재한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
 -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문화·교육·자연환경 등 일자리의 외부적 요소의 반영 필요성을 제기
- '좋은 일자리' 속성을 분해하여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의 속성 파악**
 - 청년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일자리 사업시 청년층의 선호도를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 분석방법

- '경북형 좋은 일자리' 지표에 대한 전문가설문분석(AHP) 통해 **항목별 중요도 계산**
 - 근로조건 { 임금수준, 고용안정, 근로시간 } • 사회문화 { 문화시설, 교육시설, 자연환경 } • 미래비전 { 성장가능성, 사회적평판, 승진가능성 } • 만족도 { 직무만족, 작업장만족, 일생활균형 }
- 경상북도 민선7기 좋은 일자리 세부정책별 중요도 평가
 - 민선7기 일자리 3대전략의 중요도, 세부분야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좋은 일자리 항목별 중요도

- 전문가중 30세이하는 **일생활균형만족도가 1순위**이고, 이어 임금, 근로시간의 순
- 전연령층은 임금수준 > 고용안정성 > 직무만족도 > 일생활균형만족도 > 근로시간적절성의 순

순위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전체
1	일생활균형	임금수준	임금수준	임금수준
2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3	근로시간적절성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4	고용안정성	성장가능성	승진가능성	일생활균형 만족도
5	직무만족도	근로시간적절성	일생활균형 만족도	근로시간 적절성

□ 일자리 정책 중요도

- **도 일자리정책 3대 전략별 중요도** : '청년이돌아오는일자리대책'(7.38) > '일자리 중심기업투자유치'(7.16점) > '일자리차별과격차줄이기'(6.89)
-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세부분야별 중요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7.15) > '성장주도 산업중심의 일자리'(6.96점) > '4차산업혁명 등 전략산업 일자리'(6.89)
- **좋은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별 중요도** : '6차산업활용 청년일자리 창출'(7.19) > '청년유입 특별법 제정건의'(6.49) > '이웃사촌행복공동체운영'(6.35) 등의 순

□ 시사점

- **일생활균형만족도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전략 보완이 필요**
- **정주여건 개선, 문화시설 확충 등 일생활 균형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

부록) 노동시장권역 분석결과

□ 노동시장 권역설정 필요성

- 통근취업자의 유출입현황과 규모를 파악하여 도의 고용변동 분석시에 활용
- 지방정부간 일자리 정책협업시 지역노동시장권역 기초자료가 필요
 - 일자리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 노동시장권역에 대한 통계는 부재

□ 분석내용

- 거주지와 직장소재지별로 도내 인근시군, 도외지역간 통근 취업자의 규모파악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와 통근지간 통근률, 자급률계산
-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상 생활권역을 참조한 노동시장권역 설정

□ 통근 취업자 유·출입 현황

- 경북외 통근 순유입규모는 95천명이며 이중 청년층은 23천명 ※ 전체 실업자수 25천명
 - 경북외 순유출이 95천명 발생. 상위 3개 지역은 칠곡 25천명, 경주 14천명, 구미 13천명의 순
 - 청년층은 경북외 순유입이 23천명 발생. 상위 3개 지역은 구미 5천명, 경주 5천명, 칠곡 5천명의 순

	취업자수	시군내 통근	경북내 타시군			경북외 지역		
			통근유출	통근유입	순유입	통근유출	통근유입	순유입
전연령(천명)	1300	1300	78	78	-	48	143	-95
청년층(천명)	409	354	33	33	-	22	45	-23

□ 통근 취업자의 특성(2017년기준)

- 경북인근 타시도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전문대졸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전문대졸 취업자의 장거리 통근은 주거시군내에서 일자리와 숙련·임금 mismatch로 인해 발생
- 제조업분야에서 장거리 통근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산단을 중심으로 경북 서남부지역에 편중된 영향으로 추정
- 시군내 통근자는 농림어업 비중이 높고, 경북외 통근자는 전문가 비중이 높음
 - 시군내 통근자 직업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 단순노무 > 전문가 > 사무종사자 순
 - 인근 타시도 통근자 직업 : 전문가 > 사무종사자 > 판매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 서비스종사자 순

□ 노동시장권역 설정결과 : 9개 권역

- ① 상주 문경 ② 영주 예천 봉화 ③ 울진 영덕 울릉 ④ 안동 영양 의성 청송 ⑤ 구미 김천 칠곡 군위
⑥ 성주 고령 ⑦ 경산 영천 청도 ⑧ 포항경주

□ 시사점

- 대구시 인근 시군은 통근취업자의 유입으로 역내 거주자의 고용률이 부진한 것으로 추정
 - '17년 시군별 청년층 유출입규모 : 구미(-5.4천), 경주(-5.3천), 칠곡(-4.6천명), 성주(-2.0천명) 등
- ⇒ 행정구역과 노동시장권역의 불일치, 대구경북 광역연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